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도금혜¹⁾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변인, 가정환경 변인 및 학교환경 변인들이 청소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대구 지역의 중·고등학교 1, 2학년 1,06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 변인 중 성별, 연령, 학업능력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신체적 자아존중감 및 충동성이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 변인 중 어머니와의 애착과 아버지와의 애착이, 학교환경 변인 중 또래선호도, 친구에 대한 애착, 비행친구와의 접촉 및 교사의 지지가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불안은 개인적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불안, 개인적 변인, 가정환경 변인, 학교환경 변인

1) 주저자 :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E-mail : khdo2004@hanmail.net)

I.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로서 이 시기의 청소년은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서 불안정과 불균형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심한 긴장과 혼란을 겪게 된다(정옥분, 2005). 특히,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갑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내적인 심리적 갈등과 적응상의 문제를 가질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이 속한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는 동안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며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박영애, 김리진, 2005).

이처럼 많은 혼란 속에서 청소년들은 불안을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는데, 청소년의 불안은 심리사회적 발달과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장기적인 부적응의 원인이 될 수 있다(오경자, 양윤란, 2003). 불안이란 자기에 대해 닥칠 위험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미래의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어, 자기 안전이 깨어질까 두려워하는 감정을 말하며(장조현, 2004), 막연하고 불확실한 느낌과 무력감이 포함되어 있고 인격을 위협하기도 한다(안현미, 1995). 청소년에게 불안은 사회적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고 사회생활에 심한 부적응을 초래하는 유해한 요인이 되며(조혜진, 2006), 정체감 형성 발달과정이나 학업성취 등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다(김혁곤, 1992).

이처럼 청소년에게 불안이라는 감정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불안 연구들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의 불안이 성인과는

달리 간접적이고 숨겨진 양상으로 표현되므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이정희, 2008). 이러한 결과로 대부분의 청소년 연구들은 공격성이나 비행과 같은 심각한 문제 행동이나 또래 부적응과 같은 보다 직접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며, 청소년의 불안에 대한 연구는 드문 편이며 이러한 연구들에서조차 불안과 관련이 있는 한 두 개의 변인들만을 파악한 단편적인 연구들이 대부분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청소년의 불안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사회 인구학적 변인이나 심리적 변인과 같은 개인적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 및 학교환경 변인이 불안에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문경주, 오경자, 2002; 이영식, 성종호, 손인기, 2000; 이정희, 2008; 조혜진, 2006).

먼저, 개인적 변인 중 성별과 연령이 불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이며(문경주, 오경자, 2002; 최인제, 2007;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2003),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높은 불안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어(김윤희, 허영란, 2000; 배정미, 2006; 하은혜 등, 2003), 성별과 연령에 따라 불안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성별과 연령이 가장 기본적인 개인적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에서 이를 포함

시키지 않아, 성별과 연령이 불안과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은 불안을 보인다는 상반된 결과(최인제, 2007)도 제시되고 있으며 성별과 연령에 따라 청소년의 불안은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조옥귀, 변은진, 2003)도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불안은 자아존중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Greenberg(1992)는 자아존중감이 개인을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불안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김민동, 2003)에서, 높은 자아존중감은 낮은 수준의 불안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조혜진(2006)도 자아존중감이 불안을 예측하는 변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아존중감을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 자아존중감으로 나눈 김후남(2007)의 연구에서도 모든 영역의 자아존중감이 불안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져 자아존중감도 불안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변인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불안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행동억제 기질이 거론되고 있는데(오경자, 양윤란, 2003; 양주경, 김은정, 2007), 이는 자신의 행동을 얼마만큼 조절할 수 있는가가 불안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불안 수준이 높은 집단이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하은혜 등, 2003), 불안과 충동성이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들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가정환경 변인들이 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양주경, 김은정, 2007; Donovan & Spence, 2000),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자녀의 불안은 낮아(김민동, 2003; 정민현, 2002), 부모와의 애착이 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강규영, 2004)고 밝혀지고 있어, 부모와의 애착이 불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부모나 형제의 지지와 같은 가족의 지지가 불안의 수준을 낮춘다고 보고되고 있어(최영숙, 김정민, 2008), 가족의 지지가 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부모와의 애착이나 가족의 지지가 불안과 관련이 있다고 몇몇 연구들이 밝히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부모와의 애착이나 가족의 지지와 같은 가정환경 변인이 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밝혀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환경 변인도 불안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청소년이 높은 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Edelbrock, 1985; Hymel & Franke, 1985; LaGreca & Lopez, 1998; Walters & Interbitzen, 1998). 또래 관계와 불안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또래선호도가 높을수록 낮은 불안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으며(강민지, 2005; Greco & Morris, 2005; LaGreca & Stone, 1993),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불안의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민동, 2003; 이정희, 2008; 최영숙, 김정민, 2008). 또한 교사의 지지(최영숙, 김정민, 2008)도 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또래선호도, 친구관계

및 교사의 지지와 같은 학교 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 이어서 그들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불안 관련 선행 연구들은 다양한 차원의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한 단편적인 연구였으며, 개인적 변인에만 초점을 두어 가정이나 학교와 같은 환경 변인의 영향력을 간과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불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시사되는 성별과 연령, 자아존중감 및 충동성을 개인적 변인으로 선정하였으며 부모와의 애착, 가족의 지지를 가정환경 변인으로, 또래선호도, 친구관계 및 교사의 지지를 학교환경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이처럼 개인적 변인, 가정환경 변인 및 학교 환경 변인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 함으로써 다양한 차원의 변인들을 고려한 다 차원적인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이라 기대된다.

또한 지금까지 기존 연구들은 관련 변인들 과의 상관이나 영향력의 유·무만을 파악하는 단순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까지 파악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이에, 각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들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변인, 가정환경 변인 및 학교환경 변인들을 밝히고 이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개인적 변인(성별, 연령, 자아존중감, 충동성)이 청소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정환경 변인(부모와의 애착, 가족의 지지)이 청소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학교환경 변인(또래선호도, 친구관계, 교사의 지지)이 청소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 가정환경 변인 및 학교환경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1, 2학년 1,06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청소년기가 신체적·심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많은 불안을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에 포함된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불안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전귀연과 권미연(1998)의 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7문항의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N=1,064)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성별	남	559(52.5)	출생순위	만이	485(45.9)	부학력	초등학교졸업	14(1.4)	모학력	초등학교졸업	21(2.1)
	여	505(47.5)		둘째	415(39.3)		중학교졸업	68(6.7)		중학교졸업	90(8.8)
연령	13세	56(5.3)	가구소득	셋째	70(6.6)	부직업	고등학교졸업	489(48.2)	모직업	고등학교졸업	584(57.3)
	14세	298(28.0)		넷째	6(0.6)		전문대졸업			전문대졸업	
				외동이	78(7.4)		또는 대학 중퇴	72(7.1)		또는 대학 중퇴	47(4.6)
	15세	284(26.7)		기타	3(0.3)		대학교졸업	323(31.8)		대학교졸업	258(25.3)
				100만원 이하	67(6.9)		대학원이상	49(4.8)		대학원이상	19(1.9)
	16세	39(3.7)		101-200만원	231(23.8)		무직	29(2.8)		무직	497(47.6)
				201-300만원	301(31.0)		전문직	34(3.3)		전문직	20(1.9)
	17세	212(19.9)		301-400만원	186(19.1)		관리직	111(10.7)		관리직	20(1.9)
				401-500만원	93(9.6)		사무직	297(28.6)		사무직	136(13.0)
	18세	175(16.4)		500만원 이상	93(9.6)		비숙련직	19(1.8)		비숙련직	41(3.9)
부연령	30-39세	40(3.8)	모연령	30-39세	207(19.8)	부직업	숙련직	256(24.7)	모직업	숙련직	123(11.8)
	40-49세	864(83.0)		40-49세	802(76.7)		판매직	248(23.9)		판매직	180(17.2)
	50-59세	134(12.9)		50-59세	35(3.3)		기타	44(4.2)		기타	27(2.6)
	60세 이상	3(0.3)		60세 이상	1(0.1)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불안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5이었다.

개인적 변인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희화(1998)와 최미경(2000)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6문항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를 요인 분석한 결과, 학업능력 자아존중감(5문항),

사회적 자아존중감(6문항), 신체적 자아존중감(5문항)으로 나누어지며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학업능력 자아존중감이 .75,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81, 신체적 자아존중감이 .85였다.

충동성. 충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박민정(2003)의 충동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9문항의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충동성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6이었다.

가정환경 변인

부모와의 애착. 부모와의 애착을 평가하기 위해 이수하(2005)의 부모애착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의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버지와의 애착과 어머니와의 애착을 분리하여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것을 의미한다. 부모와의 애착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88이고 아버지와의 애착이 .90이었다.

가족의 지지. 가족의 지지를 평가하기 위해 한미현(1996)의 사회적 지지 척도 중 가족의 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8문항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족의 지지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2였다.

학교환경변인

또래선호도. 또래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해 Tracy(2001)의 사회측정적 인기도 검사를 본 연구자가 변안하여 우리말로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좋아하는 친구 지명과 싫어하는 친구 지명의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좋아하는 친구 지명은 “우리 반에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싫어하는 친구 지명은 “우리 반에서 가장 싫어하는 친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질문에 3명씩 지명하도록 하였다. 개인이 받은 지명 빈도를 점수로 계산하였고, 반별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이 받은 좋아하는 친구 지명 점수와 싫어하는 친구 지명 점수는 반

전체 인원수로 나누어 환산되었다. 또래선호도 점수는 좋아하는 친구 지명 점수에서 싫어하는 친구 지명 점수를 뺀 것으로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들로부터 선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구관계. 친구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박민정(2003)의 친구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9문항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척도를 요인 분석한 결과, 친구에 대한 애착(10문항)과 비행 친구와의 접촉(9문항)으로 나누어지며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친구에 대한 애착이 .78, 비행 친구와의 접촉이 .86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비행 친구와의 접촉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교사의 지지 척도. 교사의 지지를 평가하기 위해 한미현(1996)의 사회적 지지 척도 중 교사의 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8문항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교사의 지지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0이었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6년 8월부터 11월까지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SPSS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척도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 및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 보기 위해 각 변인별로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개인적 변인, 가정환경 변인 및 학교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공차한계와 VIF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독립 변인들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개인적 변인이 청소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개인적 변인이 청소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인적 변인 중 성별($\beta = .07$), 연령($\beta = .06$), 학업능력 자아존중감($\beta = -.12$), 사회적 자아존중감($\beta = -.28$), 신체적 자아존중감($\beta = -.10$) 및 충동성($\beta = .37$)이 청소년의 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불안의 수준이 더 높았다. 또한 학업능력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신체적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고, 충동성이 높을수록 불안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변인들이 청소년의 불안을 설명하는 정도는 32%였다.

표 2.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의 중다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청소년의 불안			
		B	표준오차	β	유의확률
	성별	.09	.03	.07*	.01
	연령	.02	.01	.06*	.03
자아 존중감	학업능력 자아존중감	-.13	.03	-.12*	.00
	사회적 자아존중감	-.35	.04	-.28*	.00
	신체적 자아존중감	-.10	.03	-.10*	.00
	충동성	.46	.03	.37*	.00
F		81.89*			
R ²		.32			

기준변수 - 성별 : 남

2. 가정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가정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정환경 변인 중 어머니와의 애착($\beta = -.18$)과 아버지와의 애착($\beta = -.15$)이 청소년의 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어머니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을수록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고, 아버지와의 애착도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을수록 불안의 수준이 더 높았다. 가정

환경 변인들이 청소년의 불안을 설명하는 정도는 9%였다.

3. 학교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학교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환경 변인 중 또래선호도($\beta = -.06$), 친구에 대한 애착($\beta = .07$), 비행친구와의 접촉($\beta = .11$) 및 교사의 지지($\beta = -.15$)가 청소년의 불안을 유의하게 설명

표 3.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의 중다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청소년의 불안			
		B	표준오차	β	유의확률
부모와의 애착	어머니와의 애착	-.26	.08	-.18*	.00
	아버지와의 애착	-.21	.07	-.15*	.00
가족의 지지		.01	.03	.01	.85
F		35.60*			
R ²		.09			

표 4.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환경 변인의 중다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청소년의 불안			
		B	표준오차	β	유의확률
또래선호도		-.36	.17	-.06*	.04
친구관계	친구에 대한 애착	.08	.03	.07*	.02
	비행친구와의 접촉	.12	.03	.11*	.00
교사의 지지		-.12	.02	-.15*	.00
F		11.71*			
R ²		.04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또래선호도가 낮을수록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고, 친구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불안의 수준이 더 높았다. 또한 교사의 지지가 적을수록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환경 변인들이 청소년의 불안을 설명하는 정도는 4%였다.

4.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 가정환경 변인 및 학교환경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

인, 가정환경 변인 및 학교환경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유의했던 변인들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적 변인만을 투입한 1단계에서는 성별($\beta = .07$), 연령($\beta = .06$), 학업능력 자아존중감($\beta = -.12$), 사회적 자아존중감($\beta = -.28$), 신체적 자아존중감($\beta = -.10$) 및 충동성($\beta = .36$)이 청소년의 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2%였다.

2단계에서는 개인적 변인과 함께 가정환경

표 5.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청소년의 불안											
	1단계 (개인적 변인)				2단계 (가정 환경 변인)				3단계 (학교환경 변인)			
	B	표준 오차	β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β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β	유의 확률
성별	.08	.03	.07*	.01	.09	.03	.07*	.01	.09	.04	.07*	.01
연령	.03	.01	.06*	.02	.03	.01	.06*	.02	.02	.01	.06*	.04
학업능력 자아존중감	-.13	.03	-.12*	.00	-.11	.03	-.10*	.00	-.12	.03	-.11*	.00
사회적 자아존중감	-.35	.04	-.28*	.00	-.33	.04	-.26*	.00	-.36	.04	-.29*	.00
신체적 자아존중감	-.10	.03	-.10*	.00	-.09	.03	-.09*	.00	-.09	.03	-.09*	.00
충동성	.44	.03	.36*	.00	.41	.03	.33*	.00	.41	.04	.33*	.00
어머니와의 애착					-.17	.07	-.12*	.01	-.17	.07	-.12*	.01
아버지와의 애착					-.01	.06	-.01	.91	-.00	.06	-.00	.96
또래선호도									.29	.15	.05	.06
친구에 대한 애착									.03	.03	.03	.30
비행친구와의 접촉									.03	.03	.03	.36
교사의 지지									.02	.02	.02	.39
F	77.63*				61.48*				41.67*			
R ²	.32				.33				.33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성별($\beta = .07$), 연령($\beta = .06$), 학업능력 자아존중감($\beta = -.10$), 사회적 자아존중감($\beta = -.26$), 신체적 자아존중감($\beta = -.09$) 및 충동성($\beta = .33$)은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남아 있고, 어머니와의 애착($\beta = -.12$)이 청소년의 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 증가하여 전체 변량의 33%를 설명하였다.

3단계에서는 개인적 변인, 가정환경 변인에 학교환경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성별($\beta = .07$), 연령($\beta = .06$), 학업능력 자아존중감($\beta = -.11$), 사회적 자아존중감($\beta = -.29$), 신체적 자아존중감($\beta = -.09$), 충동성($\beta = .33$) 및 어머니와의 애착($\beta = -.12$)은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남아 있으나 이 외에 청소년의 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도 증가하지 않아 전체 변량의 33%를 설명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청소년의 불안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은 가정환경 변인과 학교환경 변인을 통제한 경우, 개인적 변인의 설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 가정환경 변인 및 학교환경 변인을 살펴본 연구이다.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자아존중감, 충동성을, 가정환경 변인으로는 부모와의 애착, 가족의 지지를, 학교환경 변인으로는 또래선호도, 친구관계 및 교사의

지지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기초하여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들은 성별, 연령, 학업능력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신체적 자아존중감 및 충동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하은혜 등(2003)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불안이 남학생의 불안 수준보다 더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비행 청소년 집단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불안 특성을 보인다는 김민동(2003)의 연구결과도 본 연구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남녀에게 요구하는 성역할이 달라 불안에 대한 표출 방식에서도 남녀가 다르게 표현하도록 요구되어진다는 Brunch와 Check(1995)의 주장에 근거하여,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불안을 노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사회적 기대로 인해 남학생의 불안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불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안 증상이 증가한다는 연구(조성진, 전홍진, 김무진, 김창규, 김선옥, 류인균, 조맹제, 2001)와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청소년의 불안 수준이 더 높았다는 연구(하은혜 등, 2003)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불안의 수준이 높다는 이정희(2008)의 연구와 남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은 불안을 경험한다는 염미영(1987)의 연구도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

스 취약성 모델에 근거하여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불안이 유발된다는 점(Barlow, 2000)에서, 학업적인 면이나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은 불안감을 표출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학업능력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및 신체적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불안은 높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불안 경향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최영희, 박영애, 박인전 및 신민섭(2002)의 연구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불안 수준은 낮다는 김민동(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낮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불안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들(김후남, 2007; 조혜진, 2006; Beeber, 1996)과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이 불안, 고립,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밝힌 연구들(서선주, 1999; Patterson, Kupersmidt & Griesler, 1990)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무가치 하게 여기고 타인과 어울리는 것을 꺼린다는 점(박소진, 2006)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고 이러한 사회적 고립이 불안감을 조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충동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불안 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충동성이 높은 불안과 관련이 있다는 하은혜 등(2003)의 연구와 일치하고, 불안이 행동억제 기질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오경자, 양윤란, 2003; 양주경, 김은정, 2007)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는 내적 통제가 불안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Takakura & Sakihara,

2001)에서,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잘 조절하는 사람들은 불안 수준이 낮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한 충동적인 사람들은 많은 불안감을 드러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개인적 변인들이 청소년의 불안을 설명하는 정도는 32%로, 가정환경 변인이나 학교환경 변인보다는 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불안이라는 변인 자체도 개인의 심리적 특성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정이나 학교와 같은 환경 변인보다는 개인적 특성이 불안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들은 어머니와의 애착과 아버지와의 애착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을수록 청소년의 불안은 높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된 청소년이 불안 수준이 낮다는 김민동(2003)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이 불안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요인이라고 밝힌 김후남(2007)의 연구 결과와 부모의 무관심이나 무시, 비난, 애정의 부족 등이 자녀의 불안을 유발한다는 김지영(1997)의 연구 결과도 본 연구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권위적이며 거부적인 행동을 보일 때 자녀는 불안감을 많이 가진다는 점(Benner & Stirling, 1998)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적이지 못하고 거부적으로 대할 때 자녀는 부모와 긍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부모 자녀간의 불안정한 관계가 자녀의 불안감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가정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불안을 설

명하는 정도는 9%로, 개인적 변인보다는 낮고 학교환경 변인보다는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개인적 특성에 의해 불안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와 가족과의 관계 또한 자녀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환경 변인들은 또래선호도, 친구에 대한 애착, 비행친구와의 접촉 및 교사의 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선호도가 낮을수록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또래선호도가 높을수록 불안이 낮아진다는 강민지(2005)의 연구와 또래선호도가 낮을수록 높은 불안을 경험한다는 이정희(2008)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또래선호도가 낮은 아동과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불안과 위축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연구(김윤경, 1998; 임연진, 1999; 이은혜, 김정운, 오원정, 2001)와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과 청소년은 높은 불안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LaGreca & Lopez, 1998; LaGreca & Stone, 1993; Walters & Interbitzen, 1998)도 본 연구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관계 기술이 좋을수록 낮은 불안을 경험한다는 점(양윤란, 오경자, 2007)에 근거하여, 유능한 또래관계 기술을 가진 청소년은 또래들로부터 선호를 받게 되고 이러한 성공적인 또래관계가 자신감을 갖게 하여 낮은 불안감을 형성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친구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불안 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또래애착이 불안을 설명하는 변인이라고 밝힌 조혜진(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 반면 청소년

이 또래와 애착을 잘 형성하지 못했을 때 더 많은 불안을 경험한다는 김민동(2003)의 연구,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불안의 수준은 낮아진다는 강민지(2005)의 연구, 친구의 지지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불안은 낮다는 최영숙과 김정민(2008)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다. 따라서 좀 더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행행동과 불안은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장동산, 이길홍 및 민병근(1985)의 연구와 비행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불안의 정도가 높다는 이재광, 진태원 및 조주연(1998)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행 행동에 더 많이 가담한다는 점(이재광 등, 1998)에 근거하여, 높은 불안을 가진 청소년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행친구와 많이 접촉하지만, 이러한 비행 행동이 또 다른 불안을 야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사의 지지가 적을수록 청소년의 불안은 높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교사의 지지가 청소년의 불안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최영숙과 김정민(2008)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지켜본다고 느낄 때 좀 더 긍정적으로 행동한다는 점(Wentzel, 1997)에 근거하여,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의 경우 교사의 관심과 지지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어느 정도 감소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학교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불안을 설

명하는 정도는 4%로, 개인적 변인이나 가정환경 변인보다는 낮은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불안이라는 감정은 친구나 교사의 관계 보다는 개인의 내적 특성이나 가족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청소년의 불안은 개인적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변인만을 투입한 1단계에서 충동성, 사회적 자아존중감, 학업능력 자아존중감, 신체적 자아존중감, 성별 및 연령순으로 영향을 주었고, 개인적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을 함께 투입한 2단계에서는 충동성, 사회적 자아존중감, 어머니와의 애착, 학업능력 자아존중감, 신체적 자아존중감, 성별 및 연령순으로 영향을 주었다. 개인적 변인, 가정환경 변인 및 학교환경 변인을 투입한 3단계에서는 충동성, 사회적 자아존중감, 어머니와의 애착, 학업능력 자아존중감, 신체적 자아존중감, 성별 및 연령순으로 영향을 주었다. 개인적 변인만을 투입했을 때 가장 많은 설명력을 보였고 가정환경 변인과 학교환경 변인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 전체 설명력이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은 청소년의 불안에 개인적 변인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가정환경 변인 및 학교환경 변인은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미비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개인적 변인, 가정환경 변인 및 학교환경 변인을 모두 투입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정환경 변인과 학교환경 변인의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정환경 변인과 학교환경 변인들을 연구에 포함시킴으로써 그들의 영향력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주는 변

인들을 개인적 변인, 가정환경 변인 및 학교환경 변인으로 구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각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영향력 정도를 비교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불안에 대한 기존 연구의 폭을 확장시킴으로써 좀 더 폭넓은 이해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청소년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 방법을 찾는 데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한편, 본 연구는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전국의 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가정환경 변인과 학교환경 변인을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하여 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폭넓은 변인들을 연구에 포함시켜 가정환경 변인과 학교환경 변인의 영향력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규영 (2004).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불안과 공격행동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민지 (2005).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상경험, 또래관계와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동 (2003). 애착유형과 자기개념, 우울 및

- 불안과의 관련성.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경 (1998).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과 행동특성.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 허영란 (2000). 중·고등학생의 물질남용 경험과 불안·우울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9(4), 631-649.
- 김지영 (1997). 초등학교 아동의 불안수준과 대처방식과의 관계.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화 (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환경변인 및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혁곤 (1992). 대학생의 사회불안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후남 (2007).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불안간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 박민정 (2003).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소진 (2006). 여대생의 애착유형과 사회불안에 대한 경로 모형: 신체상과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 김리진 (2005).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적유능성과 사회불안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4(1), 27-34.
- 배정미 (2006).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신건강실태 조사. 정신간호학회지, 15(3), 308-317.
- 서선주 (1999). 아동의 역락지각과 문제행동. 아동학회지, 20(3), 97-106.
- 안현미 (1995). 대인관계 유형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여성 성역할 태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윤란, 오경자 (2007). 또래관계기술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자기통찰에 의해 증대된 자기제시 기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1), 57-71.
- 양주경, 김은정 (2007).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기제: 행동억제기질, 가족 환경, 역기능적 신념, 불안통제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198-199.
- 염미영 (1987). 시설 청소년의 특성불안 및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양윤란 (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I: 6개월 추적조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77-597.
- 이수하 (2005).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식, 성중호, 손인기 (2000). 청소년의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환경적 요인.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1), 16-26.
- 이은혜, 김정윤, 오원정 (2001). 아동의 또래지위 및 친구관계와 학교 적응의 관계. 아동학회지, 22(1), 1-18.
- 이재광, 진태원, 조주연 (1998). 비행청소년의

- 불안, 우울, 억압,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7(3), 493-500.
- 이정희 (2008).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학업성취가 사회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연진 (1999).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정보처리 능력과 사회적 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동산, 이길홍, 민병근 (1985). 한국청소년의 불안 및 우울성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분석. 중앙의대지, 10(4), 405-422.
- 장조현 (2004). 부모의 정서적 학대와 아동의 불안 및 공격성과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귀연, 권미연 (1998). 약물남용 청소년의 가족적특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2), 1-23.
- 정민현 (2002). 애착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인불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2005). 청년발달의 이해. 학지사.
- 조성진, 전홍진, 김무진, 김창규, 김선옥, 류인균, 조맹제 (2001). 한국 일도시지역 청소년의 우울 증상 유병율과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정신신체의학, 40(4), 627-639.
- 조옥귀, 변은진 (2003). 시설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진로의식성숙, 불안 및 내외통제성간의 관계. 경남지역연구, 9, 387-372.
- 조혜진 (2006). 청소년의 또래 애착과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미경 (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아의 경험: 단기 종단적 연구와 심층면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영숙, 김정민 (2008). 비합리적 신념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2), 103-114.
- 최영희, 박영애, 박인전, 신민섭 (2002). 아동의 우울 및 불안경향과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203-214.
- 최인제 (2007).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분화 및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3), 611-628.
-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2003). 청소년기 우울 및 불안증상 공존집단의 심리사회적 위험요인. 한국심리학회지, 22(2), 127-144.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arlow, D. H. (2000). Unraveling the mysteries of anxiety and its disorders from the perspective of emotion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55, 1247-1265.
- Beeber, L. S. (1996). Pattern integrations in young depressed women.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0(3), 151-156.
- Bennet, A. & Stirling, J. (1998). Vulnerability factors in the anxiety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71-311-321.
- Brunch, M. A. & Cheek, J. M. (1995). Developmental factors in childhood and

- adolescent shyness. In R. G. He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pp.163-182). New York: Guilford Press.
- Donovan, C. L. & Spence, S. H. (2000). Prevention of childhood anxiety disorders. *Child Psychology Review*, 20(4), 501-531.
- Edelbrock, C. (1985). Teacher's perceptions of childhood anxiety and school adjustment.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Anxiety Disorders in Children*. Cape Cod, Ma.
- Greco, L. A., & Morris, T. L. (2005). Factors influencing the link between social anxiety and peer acceptance: Contributions of social skills and close friendship during middle Childhood. *Behavior Therapy*, 36, 197-205.
- Greenberg, J. H. (1992). *The grammatical evidence for Eurasianic*. Stanford Univ. Ms.
- Hymel, S., & Franke, S. (1985). Children's peer relations: Assessing self-perceptions. In B. H. Schneider, K. H. Rubin. & J. E. Ledingham(Eds.). *Children's peer relations: Issues i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New York: Springer-Verlag.
- LaGreca, A. M., & Lopez, N. (1998). Social anxiety among adolescents: Linkage with peer relations and friendshi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 83-94.
- LaGreca, A. M., & Stone, W. L. (1993).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revised: Factor structure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2, 17-27.
- Patterson, C. J., Kupersmidt, J. B., & Griesler, P. C. (1990). Children's perceptions of self and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a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 1335-1339.
- Takakura, M. & Sakihara, S. (2001). Psychological correlate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Japanese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8, 82-89.
- Tracy, V. (2001). *Competing for hegemony during adolescence a link between aggression and social status*.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 Walters, K. S., & Interbitzen, H. M. (1998). Social anxiety and peer relations among adolescents: Testing a psychobiological model.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2, 183-198.
- Wentzel, K. R. (1997). Student motivation in middle school: The role of perceived pedagogical car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3), 411-419.
- 1 차원고접수 : 2008. 07. 14.
수정원고접수 : 2008. 09. 07.
최종게재결정 : 2008. 09. 16.

A Study of the Variables Influencing Adolescent's Anxiety

Do, Kum-Hae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variables influencing adolescent's anxiety.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individual variables, as well as family and school environmental variables. The subjects for this research comprised 1,064 - 1st and 2nd graders of several middle and high schools in Daegu.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anxiety was affected by sex, age, academic self-esteem, social self-esteem and physical self-esteem in regards to individual variables. Second, adolescent's anxiety was affected by mother's attachment and father's attachment in terms of family environmental variables. Third, adolescent's anxiety was affected by peer acceptance, peer's attachment, delinquent experiences and teacher's support when it came to the issue of school environmental variables. Fourth, Individual variables were seen to have a great influence and impact upon on adolescent's anxiety, more so than any other variables.

Key words : anxiety, individual variables, family environmental variables, school environmental variables